



인천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인천경영포럼, 인천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성장 지원, 사회적기업 제품 민간 구매 확대 공동 추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6월 17일(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경영포럼(회장 원용휘),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와 인천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진흥원이 인천 지역 신규 사회적기업 유입 확대 및 인증·지정률 제고를 위해 추진한 ‘2024 사회가치 목적지향기업 모의 창업 경진대회’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 자원을 연계, 사업을 확장하여 청년 창업팀의 참여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초기 창업의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협약을 통해서 참여기관(4개 기관)은 ▲지역의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지원, ▲「인천시 판로 확대 통합지원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진석 수도권총괄본부장은 “사회적경제는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더 단단히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손혜영 인천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협약은 인천시가 민간, 대학,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년 예비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함께 실천해나가는 소중한 첫 발걸음으로 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영포럼의 원용휘 회장은 “인천경영포럼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천의 기업인들이 모인 민간 네트워크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예비창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채진석 창업지원단장은 “인천대는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교육의 중심대학으로서, 학생들이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창의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더욱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협약을 기반으로 하반기부터 청년 창업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자 발굴 및 성장지원, 사회적가치 소비확산 등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통합센터	책임자	팀 장	구자경 (02-467-2517)
		담당자	과 장	심현우 (032-858-7671)

